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자) 사순 제 4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일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교황님 기도지향(3월)

복음화 지향: 생명 윤리의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

생명 윤리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실천으로 언제나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하도록 기도합니다.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누우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녀들을 모두 사랑의 품으로 받아 주시고 빛나는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어린양의 파스카 잔치에서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제1독서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5,9ㄱ-10-12

<하느님의 백성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화답송 시편 34(33), 2-3.4-5.6-7 (◎ 9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5,17-21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루카 15,18 참조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1-3.11ㄴ-32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영성체송 루카 15,32 참조

아들아,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우리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에 달려오시어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절인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권고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사순 제 4 주일

♣ 천국과 지옥, 그리고 자유 - 전삼용 요셉 신부 ♣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죄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서 짓는 것이기에, 천국에서는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즉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뱀이 없어진다는 말은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말인데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내 안의 뱀은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옥이 자유가 없는 곳이고, 천국은 자유가 완전해지는 곳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비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와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입니다.

오늘 비유를 들어주신 이유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생보다 더 자유롭지 못한 큰 형과 같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큰 형은 죄만 짓고 돌아온 놈도 싫지만, 일만 죽도록 한 자신보다 실컷 죄만 지은 죄인을 단숨에 받아주는 하느님이 더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바로 지옥이고 자유를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맏아들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자존심을 혹은 자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자신의 자아가 죽어서 죄를 용서받기도 이전에 이미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 사순 제 4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글구절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 작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루카 15,32)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2022년 부활 판공성사 안내(3월 6일~4월 3일)

성사 순번(권고) : (27일) 마르코반 → (4월 3일) 루카반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주일 미사 30분 전 시작)

순번 : (27일) 루카반 → (4월 3일) 사목회

우크라이나 사태와 호주 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호주 홍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가정 및 개인별로 기도와 선행, 절제를 통해 정성스럽게 모으신 금액을 4월17일 부활절 미사 중 봉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봉헌된 모금액은 우리 공동체의 사회복지 예산 일부와 함께 아래 후원기관에 전달됩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관심과 정성스런 참여를 바랍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카리타스 모금 운동: <https://tinyurl.com/2zpa4txv>

※ 호주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비니스 모금 운동: https://www.vinnies.org.au/page/Find_Help/Flood_appeal/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주교회의 의장 담화

한국 천주교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과 우애와 인류애로 연대하기 위해 전쟁으로 고통받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다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성을 호소 하셨습니다.

거룩한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우분들의 우크라이나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화문 전문 링크: <https://cbck.or.kr/Notice/20220161?gb=K1200>

캔버라교구 다문화 미사 (Multicultural Mass) 관련 정보

캔버라교구는 4월 24일 (주일) 부활 제 2 주일을 맞아 오전 11시 크리스토퍼 주교좌 성당에서 다문화 미사 (Multicultural Mass)가 집전됩니다.

올해부터는 예전처럼 미사 후 이민자 공동체별로 음식 나눔 등 부대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당일인 4월 24일 부활 제 2 주일에는 공동체 미사가 없으니 주의바랍니다.

다문화 미사 참석 복장은 한국 전통 복장인 한복을 권장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St. Christopher's Cathedral – Furneaux St, Forrest

2021년 다문화 미사: <https://www.catholicvoice.org.au/hidden-treasures-thanked-for-their-riches/>

주님 수난 성지주일의 유래와 의미

4월 10일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역사가 펼쳐지는 성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님 수난 성지주일입니다. 성지는 원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나 올리브나무 가지를 사용했지만, 기후여건이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사철 푸른 나뭇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측백나무나 향나무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 나뭇가지는 일 년 동안 보관했다가 이듬해 사순시기 직전에 태워, 사순 시작을 알리는 재의 수요일 미사 때 신자들의 이마에 바릅니다. 축복한 나뭇가지를 들고 들어가는 것은 예수가 군중의 환호 속에 수난과 영광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입성했음을 기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시작된 성주간(聖週間)은 성삼일인성금요일과 성토요일, 예수 부활대축일을 지내면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성주간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수난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 수난과 가장 큰 기쁨인 부활을 함께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성주간입니다.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 사순 제 4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18



음식, 물건 등은 내가 사는 근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구매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8CK)

생활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15



출발 전 주행 경로와 시간을 파악하기

→ 32.62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8CK)

cpbcTV 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

[항창연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아프리카에 희망과 평화를 전합니다!'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아프리카에 심은 희망의 씨앗 : 잠비아 생태마을 >

성 요셉 성월 기도문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 주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참례자수

3월 13일	성인 31 아이 11	3월 20일	성인 31 아이 7
--------	-------------	--------	------------

□ 우리들의 정성 (3월 19일(토)~26일(금))

구민식	김요한	김태린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정수민	주진호				
교무금 : \$350 (12가정) / 봉헌금 : \$21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3월 27일, 사순 제 4 주일) 장호훈 마르코, 서은주 데레사
(4월 3일, 사순 제 5 주일)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27일) 마르코반 → (4월 3일) 마태오반 → (4월 10일) 루카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 (4월 3일) 요한반 → (4월 17일) 모든 반(※ 부활 대축일 음식나눔) →
(5월 1일) 루카반 → (15일) 마르코반 → (29일) 마태오반

□ 최신 코로나 19 방역수칙

우리 공동체에서는 교구의 최신 방역 방침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하고, 성당 출입 시 QR 코드 스캔, 체온측정도 중단하였습니다. 손 세정제는 향후에도 자유로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당 입구에 비치해 놓으며 미사 후 성당 뒷정리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합니다.